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참고자료 | 정책을 공감하는 정부

보도시점 2023. 7. 13.(목) 배포즉시 배포 2023. 7. 13.(목)

한-폴란드 무역·투자 확대 기반 공고화

- 정상 임석 하 무역 투자촉진 프레임워크(TIPF) 양해각서(MOU) 체결로 한-폴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

이번 한-폴란드 정상회담 계기, 무역·투자, 공급망 협력 등 양국 협력 확대, 우리 기업 폴란드 시장 진출 확대 및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폴란드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.

산업부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「무역 투자촉진 프레임워크(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(TIPF))*, 양해각서(MOU)」를 7월 13일(목)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하였다. 양국은 무역 투자촉진 프레임워크(TIPF) 양해각서(MOU)를 토대로 무역, 투자, 산업,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서 기업 간 공동사업(프로젝트) 개발, 무역장벽 제거 등 무역·투자 환경 개선 및 양국 간 포괄적 산업협력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.

*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: 통상·산업·에너지 분야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비구속적 협력 업무협약(MOU)

산업부는 최근 세계(글로벌)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·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현안(이슈) 부상에 따라 올해 주요 통상정책 목표의 하나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 투자촉진 프레임워크(TIPF)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번 폴란드와의 무역 투자촉진 프레임워크(TIPF)는 아랍에미리트(UAE), 도미니카공화국, 헝가리, 바레인에 이어 5번째로 체결한 것이다.

2022년 한·폴 양국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, 한국은 폴란드 내 핵심 투자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. 폴란드에 약 350여 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, 아울러 한국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, 방산, 원전, 기반시설(인프라)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체결한 한-폴란드 무역 투자촉진 프레임워크(TIPF)는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하는데 새로운 계기(모멘텀)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상헌 (044-203-56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석 (044-203-5665)